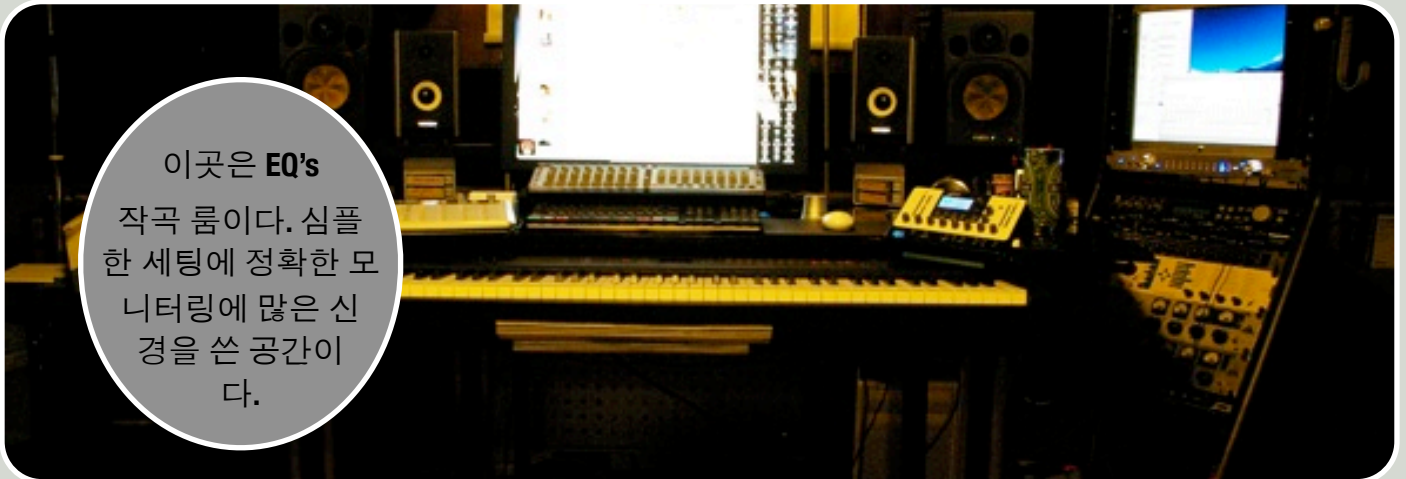


# BLOW4D

## Blow4D란?

4인치 크기의 컴팩트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에 디지털 인풋까지 탑재해 선택의 폭을 넓힌 액티브 모니터링 스피커 시스템이다.



이곳은 EQ's 작곡 룸이다. 심플한 세팅에 정확한 모니터링에 많은 신경을 쓴 공간이다.

## BLOW4D의 리뷰를 위해 먼저 필자의 공간을 소개한다.

우선 필자의 직업은 음반 제작, 프로듀싱, 작,편곡 프로듀싱을 하는 음향 보다는 음악에 가까운 일을 하는 것이다. 스피커의 리뷰에 앞서 그 스피커의 공연장이 될 필자의 작업 공간을 소개한다.

오래된 고택의 다락방을 기본으로 디자인된 필자의 작업 공간은 애초에 음향적 측면에서의 자연스런 반사, 흡음, 확산이 되는 공간이다.

소리의 수음이 아닌 리스닝의 공간이므로 방음에 관해서는 논외로 하겠다.

천장은 비교적 낮아 최고 높이가 2.2m를 기점으로 앞뒤 양면으로 조금씩 경사각으로 떨어지는 캐빈형 구조이다. 또, 천정의 대부분은 나무재질로 만들어져

자연스러운 소리의 울림을 만들어준다.

따라서 필자는 콘크리트로 된 벽면의 대부분을 흡음재 처리를 했고, 코너진 구석의 대부분을 베이스트랩 처리를 했다. 천정에도 확산장치를 더해 음들이 멍치지 않고 고루 울려 퍼지게 하는데 포인트를 맞췄다.

스피커와의 거리는 NF-1A가 1.8m, Blow4D의 거리는 1.4m로 설정했다.



유리 데스크에 비친 인프라스닉 로고! 선명하게 빛나는 인프라스닉 로고는 BLOW4D의 매력을 한층 더 강조한다.

# BLOW4D



박스는 생각보다 훨씬 더 अच्छ게 포장되어 있었다.

필자가 그동안 만났던 수 많은 스피커들 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견고하게 포장되어 실은 많이 놀랐다. 사실 음악을 하다보면 국산보다는 외산 악기들을 주로 사용하게되다 보니 그동안 한국의 음악, 음향기기의 세계화를 너무도 몰랐었나보다. 국산의 자긍심을 여기서도 느끼는...EQ

좋은 모니터링 공간은 스피커에게 자신의 소리를 뽐낼 수 있는 좋은 공연장과도 같은곳!

이렇게 만들어진 룸은 메인 모니터링 시스템인 Fostex NF-1A 와 나름 환상적 궁합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던 중 좀 더 작은 스피커를 보조 스피커로 사용하며 조금 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스피커를 찾아보던 중 다행(?)히도 BLOW4D의 리뷰 광고를 보고 신청했다.

물론 전시 매장에서 여러 소형 스피커를 모니터 해보고 고를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내

룸과의 궁합을 테스트 해볼 기회이니 어찌나 좋은가^^.

자 그럼 이제 박스를 오픈해보자!

묵직한 걸 박스를 뜯으면 그 안에 두 개의 박스가 더 있고 그 안에 각각의 스피커와 콘센트 메뉴얼및 받침용 고무패킹이 들어있다. 견고한 재질로 포장되어 흔들림도 전혀없고, 안전한 포장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견고하게 포장된 박스와 내용물



## Fostex NF-1A와 Blow4D의 비교

사실 두 스피커는 크기로만 해도 비교의 대상이 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비교의 대상이라면 야마하의 msp-3, Tascam VL-A4, KRK-v4 와 비교를 해야 하지 싶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메인으로 들으며 본인의 귀와도 이미 친숙해져버린 NF-1A를 레퍼런스로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필자가 레퍼런스로 잡는 여러곡들을 들어봤다.

연결은 필자의 맥프로 라인아웃에서 아포지 앙상블의 라인인풋을 거쳐 Blow4D의 Coaxial 단자와 XLR아날로그 인풋으로 연결했다.

음악 플레이...! 헉...우선 그 음량에 놀랐다. 사실 4인치 모니터링 스피커라는 선입견도 있거니와 메인으로 듣는 NF-1A와의 외형적 크기도 많이 차이가 나서 음량적 기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더욱 더 놀랐다.

단숨에 보조스피커를 생각했던 나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큰 음량을 뿜어냈기 때문이다. 물론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적당한 볼륨을 셋팅한 후 테스트에 들어갔다.

이쯤에서...

다른 리뷰어들께서 이미 상당부분 기능적인 부분이나 스펙상의 부분들을 다루셨기에 필자는 보다 주관적인 느낌으로 리뷰를 할것임을 알려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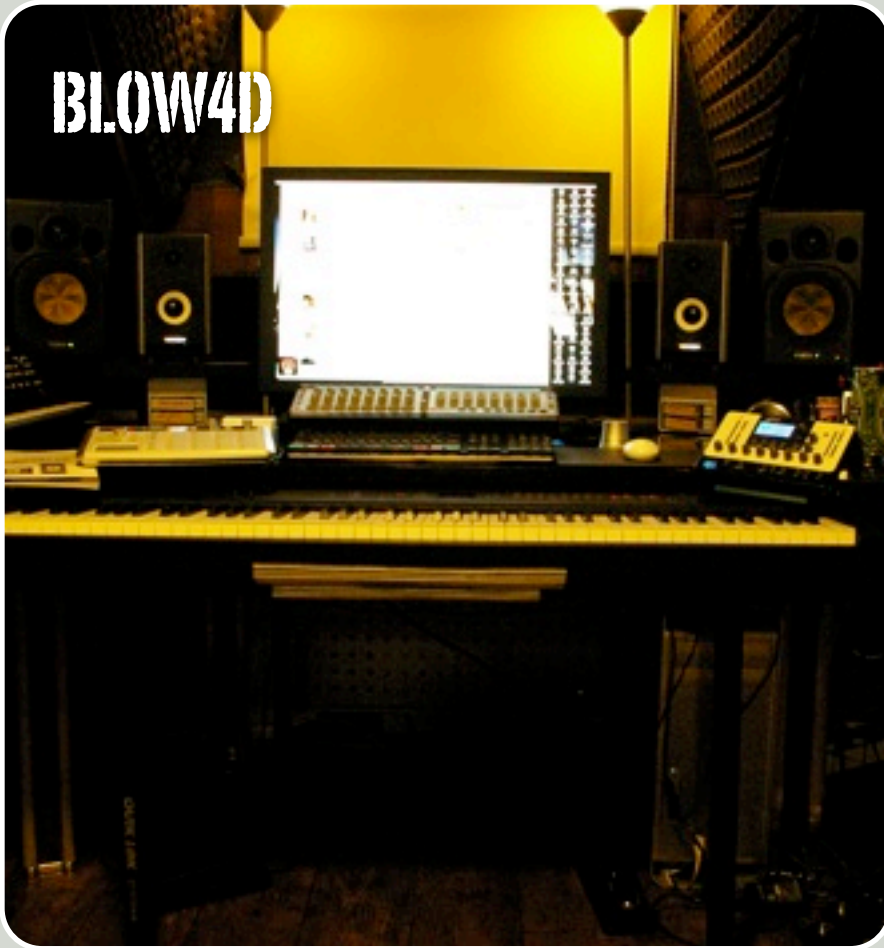
사진으로나마 원근감을 이용 비슷한 사이즈로...

## BLOW4D



### 작지만 파워풀한 음량!!!

생각보다 커다란 음량으로 작은 작업실 이외에 좀 더 큰 작업 룸에서도 사용이 가능할정도이다. 두고봐야 알겠지만 저렴한 가격대에 출시된다면 이 이상의 선택이 없지 않나 싶을만큼 풍족한 음량을 전해준다.



**Distance**

앞서 말했듯이 필자의 룸은 비교적 룸튜닝이 잘 되어 있어 후면의 어저스트 스위치를 모두 노말 세팅으로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룸과의 궁합은 매우 좋은편이었다. 스피커 사이의 거리는 1.4m 정도를 두고 그 정삼각의 위치에서 모니터 했음을 알려준다.



**디지털 인풋, 아날로그 인풋, 각종 스위치들은 어느정도 룸을 위해 조정...**

Blow4d 의 장점이라면 자체적인 디지털 인풋을 탑재하고 있다는것이다. 기본의 아날로그 인풋 이외에 자체의 DA컨퍼터의 성능을 비교해봤다.

과연 디지털 인풋의 사운드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6인치급의 NF-1A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좌우의 스테레오 해상도는 물론 상하의 폭넓은 주파수 대역을 무리없이 소화해주고 있다.

사실 필자는 그 가격대나 등급에서 예전 탄노이 리빌 액티브 또는 그 이하를 상상했으나 비교의 대상

에 올리기도 미안할 정도로 안정되고 넓은 사운드를 고루 품어주고 있다.

자 그럼 아날로그 인풋의 소리를 감상해보자. 음...사실 디지털 인풋에서보다 헤드룸 스테레오 이미지 모두 확 넓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왠지 필자는 그냥 디지털 인풋을 사용하게 될것같다. 그거야 개인

적인 취향의 차이이므로 다른 분들이 들으면

아날로그 인풋의 사운드를 더 좋아 할 수도 있겠다.

필자의 레퍼런스는 여전히 NF-1A이므로...^^

디지털 인풋의 놀라운 성능

BLOW4D(각 5점 만점)	스테레오감	디지털인풋	아날로그인풋	종합
	4.5점 놀랄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4.5점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필자의 세컨더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낙점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듯...	3.5점 아날로그 인풋의 느낌도 좋았으나 뭔가 외곡되는 필자 개인의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사운드.	4점 이상 디지털 케이블을 이용해 작고 클린한 작업환경을 원한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것같다.

# BLOW4D 리뷰 를 마치며.

모니터링 스피커에겐 최고 공연장인 룸 세팅을 좀 더 신경쓰자!!!

강조해도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을문제이기에 블로우4의 리뷰 말미에도 룸 세팅에 관해서 얘기한다.

아마도 룸의 환경이 나뉘거나 달랐다면 위와 같은 결과가 아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테니 말이다.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극복한 후의 블로우4는 정말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물론 가격적인 매력까지 더해져서 말이다.

늘 외산 제품에 길들여져 당연하게만 여기며 사용해왔던 나에게 국산악기의 이미지를 확 바꿔준 제품이어서 그런지 반짝이는 인프라스닉 로고가 더욱 더 고급스럽게 느껴진다.



깔끔하고 알찬 디자인의 Blow4D

이제부터 필자의 작업룸을 통해 만들어져가는 음악들에 더욱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다. 한동안은 NF-1A와 Blow4D로 비교 청취한 음악들을 내보낼것이니 말이다.

누군가 내게 저렴한 가격에 작은 공간에서 아주 효과적인 모니터링 장비를 문의해 온다면

주저없이 소개할 제품을 만나서 또 너무 반갑다.

끝으로 리뷰를 허락해주신 인프라스닉 관계자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